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 금융 리더 양성 프로그램 CFDP로 인재 품는다 “다양한 업무 경험하고 배치”

2025. 7. 6.

- **MBA 졸업 및 예정 인재 모집 전형 합격 시 18개월 실무 경험 후 배치**
- **첫 기수 경쟁률 50대 1 인기 쿠팡의 금융 전략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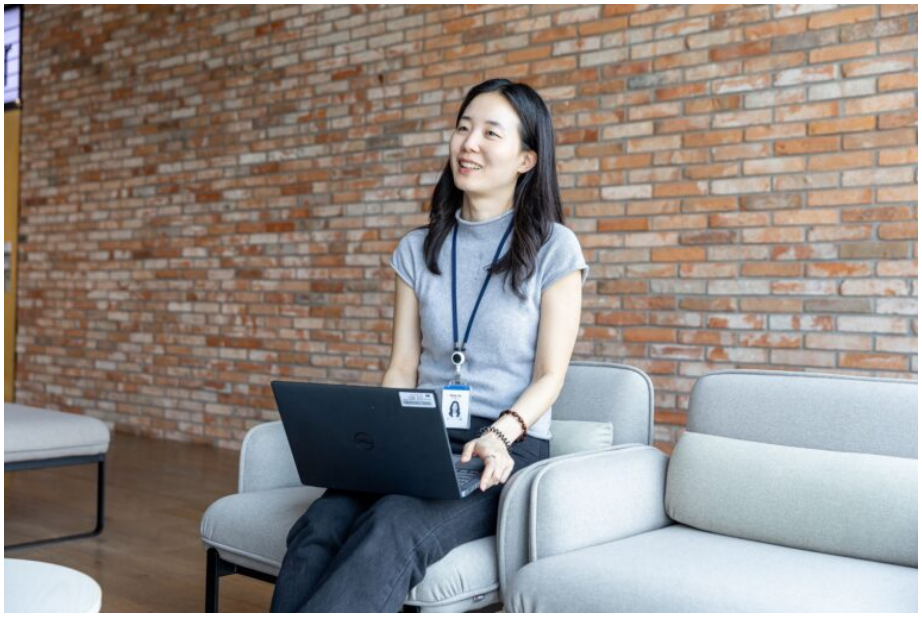
2025. 07. 07. 서울 - 쿠팡이 금융 분야 인재 개발 프로그램 ‘CFDP(Coupang Finance Development Program)’를 운영하며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6일 밝혔다.

CFDP는 경영학 석사(MBA) 학위 보유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18개월 과정의 금융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우수 인재들이 쿠팡의 업무 현장을 두루 경험하고 금융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전형에 합격하면 정규직 채용이 확정되며, 이후 참가자들은 쿠팡 파이낸스 조직 내 두 개의 다른 팀에서 각 9개월씩 근무하는 순환 시스템을 통해 재무, 기획,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금융 실무를 직접 경험하며 역량을 키우고 비즈니스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개인의 역량과 선호에 가장 적합한 팀에 배치받은 후 쿠팡의 금융 전략을 이끄는 핵심 실무자로 성장하게 된다.

마치 대학의 자유전공학부생이 여러 전공을 탐색한 후 자신의 학과를 결정하는 것처럼, CFDP에 참여한 쿠팡 직원들도 파이낸스 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며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커리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쿠팡은 로켓배송을 중심으로 한 물류 혁신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국내 주요 대학과의 산학협력, 채용 연계형 인턴십 진행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인재 양성 노력은 금융 분야로도 확장되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금융 인재를 발굴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CFDP를 기획했다.



CFDP를 통해 쿠팡에 합류한 재직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큰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올 초에 모집한 첫 기수에서는 50대 1을 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두 명의 최종 합격자가 나왔다.

프랑스 명문 경영대학원인 인시아드(INSEAD) MBA를 졸업하고 쿠팡에 합류한 구현지 씨는 배송 관련 지표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 씨는 "단발적인 프로젝트를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변화에 기여하고 싶어 쿠팡에 합류했다"며 "부서 로테이션을 통해 배송 관련 지표 분석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쿠팡 비즈니스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데이터에 기반해 다른 부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KAIST 디지털 금융 MBA를 거쳐 쿠팡에 온 조한나 씨는 재무 지표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조 씨는 "신입이 아닌 경력직을 대상으로 로테이션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국내에는 흔치 않은데 좋은 기회 눈이 번쩍 띄었다"라며 "MBA 이후에 재무 분야로 업무확장을 희망하는 분들께 좋은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내년 상반기에 프로그램 2기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 외 다른 직군으로의 프로그램 확대, 해외 오피스와의 교류 프로그램, 해외 현지 채용으로 확대 가능성도 고려 중이다.

쿠팡 관계자는 "CFDP는 우수한 인재들이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해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